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NEWSLETTER

소리통

MEMORIE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허망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퇴약별에 단식농성을 하러 나옵니다.
 친구를 잃은 학생들이 그 먼 길을 걸
 어서 국회까지 왔다고 합니다. 미안
 하고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데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은가봄니
 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
 께 하겠습니다.

인의협 소식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의료민영화
 중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
 의료인 시국대회
 2014년 7월20일(일) 오후2시
 청와대 청운동사무소~광화문 방향
 행진

[인의협 7월 문화유산산책] 북악산
 집합장소: 국무총리공관 맞은 편
 2014년 7월20일(일) 오전10시

이 달의 사진



지난 6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으시며
 인의협을 위해 애써주신 심재식 선생
 님께서 이사장직을 퇴임하시고 고한
 석 선생님께서 새롭게 이사장에 선출
 되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 인의협 회원의 밤 개최

지난 7월 5일 토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2014 인의협 회
 원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1부는 신입회원 환영회, 2부는 심
 재식 이사장님의 퇴임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
 들이 참석하여 뒷풀이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평

2014년 7월 15일

[의대교수선언] 미래 의사를 위한 교육에 의료영리화가 미치게 될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보건의료뉴스

[한겨레] '병원 영리사업 확대 철회' 정부 누리집에 글 쇠도

[프레시안] 일방적인 '의료보험 중단' 그는 결국 죽어야 했다.

[라포르시안]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숨겨진 의도는?

[청년의사] 원격의료 시범사업 두고 또다시 뼈격대는 집행부-비대위

언론과 인의협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하루에만 40명 내시경, 나는 의사인가 기계인가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국민도 괴롭고, 의사도 괴로운데.. 왜 이걸 할까

[중도일보] 한국사회에 필요한 의료제도

칼럼

법치와 민주주의

대경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 김진국

대구의 '강남'이라고들 이야기하는 수성구. 그 수성구 중에서도 제일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의 경계를 가르는 야트막한 산기슭에 언제부터인가 그 아파트 주민 일동이란 이름으로 내건 펼침막 하나가 펼쳐지고 있다. "혐오시설 154,000 V, 고압전선 지중화하라!" 그런데 다른 지역의 송전탑 건설 현장과 달리 무척 평온한 분위기다.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려는 주민들의 시위나 공사 자재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의 진출입을 저지하기 위한 움막·농성장도 볼 수 없고, 형광빛 조끼로 관등성명을 가린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어슬렁대는 경찰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자동차들만 무심하게 펼침막 아래를 지나다닐 뿐이다. 요즘은 길을 걸어갈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나 하나같이 스마트폰에 고개를 처박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 누가 그 펼침막을 보거나 했을까 싶을 정도다.

지방 선거가 끝난 뒤 딱 일 주일이 되던 날. 밀양에서 자기 집 앞과 논을 가로질러 가는 756 kV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던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에게 경찰병력이 들이닥쳤다. 농성하는 주민들이래야 7-80대 노인네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연대하러 나왔던 몇몇 활동가들과 성직자들... 한줌도 안 되는, 그나마 저항할 힘도 없는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중무장한 2,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들의 유일한 저항수단은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는 것이었다. 경찰은 노인네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듯 하면서 그 쇠사슬들을 절단했다.

한줌도 안 되는 노인네들의 저항으로부터 한전의 송전탑 건설작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대한민국 경찰이 쏟아 부은 돈은 100억 원이 넘고, 동원된 경찰병력만 연인원 38만이 넘는 단다. 바람만 세계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7-80대 노인네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약 전쟁 상황이었다면 그 경찰의 지휘 책임자는 반인륜적 범죄자로 지목되어 전범재판소로 끌려가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노인네들의 진압작전(?)이 성공한 뒤 국가를 위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무슨 대단한 일어난 것처럼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기념촬영까지 했다. 그 장면에서 내 머리에는 언뜻 광주시민의 시신을 앞에 놓고 승리의 군가를 불러대던 1980년 광주의 진압군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꼬부라진 허리, 거친 노동으로 일그러진 손마디, 살은 바짝 말라 뼈밖에 남지 않은 듯한 할매·할배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짓밟은 그 경찰들에게 수치심이랄지, 가책이랄지, 그것도 아니면 차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란 것을 알지만 조직의 일원으로,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함부로 거부할 수 없었던 명령을 수행한 것이란 회한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양심의 울림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상상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경찰의 진압작전은 사법부가 이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고,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보호한 행위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아마 한 치의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해달만큼 뻔뻔스럽게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농성을 하던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막무가내로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 마을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중화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다. 생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요구를 철저히 짓밟아버렸다.

대구 수성구에 들어설 송전탑의 용량은 밀양 송전탑 용량의 1/5 수준이다. 주민들이 지중화하라는 이유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거주이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다. 밀양과 달리 수성구에 들어설 송전탑이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지를 보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 이글은 지난 7월 여정남 기념사업회 회보에 실린 글입니다.

문화

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병원에 근무하다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심심치 않게 촌지를 보내올 때가 있다. 대부분의 환자 보호자들이 밤늦게 일하는 전공의들 식사나 한 번 하라고 넌지시 던져 주곤 하는데, 말 그대로 짧은 성의를 보여 주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후일이나 댓가를 고집하면서 주는 뇌물성 촌지도 있다. 보통 이것들을 감별하기는 어려운데, 퇴원하면서 주는 촌지나, 떡을 비롯하여 먹는 것으로 주시는 분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입원 중간에 주는 촌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어,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은 촌지가 아니라 댓가를 바라는 것이기에, 받는 쪽의 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여든 살의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오셨는데, 실어증과 함께 무시 현상이 동반된 할머니였다. 보통 언어는 좌측 반구가 지배하고, 공간 감각은 우측 언어가 지배하는데,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좌측 뇌가 손상을 입었는데, 두가지 증상이 모두 같이 나타났다.

하루는 허름하게 옷을 입으신 어르신이 찾아와서는 입원한 환자의 남편이라고 하시고는,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고 하시면서 외래에 방문했다.. 보통 나이가 든 어르신 부부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도 환자일 경우가 많다. 나는 "어르신,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환자분을 잘 보십니다." 라고 이학적 검사하고 이것 저것 검사를 하자고 했다. 그러자 어르신은 허리춤에서 꼬깃 꼬깃하게 봉투를 내어 오시더니만, "선생님. 우리 집사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얼른 나는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계시면 됩니다. 저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곱게 그 돈봉투를 돌려드렸다. 병원에 입원한 보호자의 마음은 오죽하랴. 대부분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절대 약자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좀 더 잘 봐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촌지를 받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난 뒤 며칠 뒤 다시 남편분이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더니만, 이제는 다시 그 봉투를 꺼내시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것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니다 이제 모두 헤어졌습니다. 제발 좀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돈봉투가 내가 다른 진료실에 가자 책상위에 놓여져 있었다.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 할아버지 말 마다나 봉투는 다 헤어져서 돈이 빠져 나왔다.

진료를 마치고 난 뒤, 나는 그 돈봉투를 들고 생각에 잠겼다. 돈도 돈이거니와 그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쪽눈은 마비가 되어 눈꺼풀이 쳐져 행색이 말도 아닌 할아버지에게서 의사랍시고 돈을 받고 있는 나는, 도저히 촌지로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들고 어머니를 간병을 하고 있는 딸에게 찾아갔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촌지를 주고 가셨고, 이것은 내가 받았다고 치고, 어머니 아버지 보기도 힘드실 텐데, 몰래 아버님께 드리던지 아니면 따님이 쓰시라고 전했다. 그러자 따님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입원 기간에 받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퇴원하면서 드리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저런 상황을 말하면서, 받지 않겠다고 하자 딸이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 아버님은 개성분이십니다. 개성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6.25이후 피난와서 고양에 정착해서 저희들을 낳으시고 키워왔습니다. 아버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병원비도 건물 임대료로 내오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머니가 이래서 힘이 들지만 엄마돌본다고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엄마가 쓰러질 때, 그렇게 지극 정성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옛날 분이셔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브란스에서 수술할 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받는 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지 말자고 했습니다만, 아버님이 워낙 막무가내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신 가봐요. 아버님은 평생 검소하게 지내시면서 돈을 모아서, 우리에게 조금씩 물려주시긴 하셨지만, 엄마가 저렇게 된 다음에는 다 필요없으니, 엄마가 살아나서 앉아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뜻에서 받아주세요."

허름한 잠바에 땃국이 자국한 바지를 입고 오시고 머리는 산발되어, 어디 논두렁에서 잡초를 뽑다 오신 모양인 그 할아버지와 오른쪽은 있는지도 모르고 왼쪽만 있어 빙그레 웃기만 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나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날 짧은 뜻에서의 촌지가 아니라, 내가 그 두 노부부의 넉넉한 사랑을 받았다. 단지 나에게 의사는 존재만으로 이런 큰 복이 있다니, 병원 밖에서는 그렇게도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어도 재활병동에는 애절한 그리움이 넘쳐난다. 흔히들 사랑이라고 하면 유행가 가사처럼 가슴 시리고 짜릿하거나 아이들의 노래처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초겨울에 감나무 꼭대기 끝에서 늘어질 때로 늘어진 까치를 기다리는 흥시처럼 진득하게 한 평생 우려나는 그런 그들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만 느껴진다. 한 평생 그 힘든 세상의 파도를 헤치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사랑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존재자체가 희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안내



의료민영화 중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의 시국대회

2014 7. 20 (일)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앞

- 보건의료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코드 흰가운, 흰옷 •
- 문의 • 010_3160_3016 • 010_3290_9351 •